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6호 pp. 253-258, 2017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6.253

# 다집단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CSR 효과 차이 연구

남상욱*, 양진환
서원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ME's CSR Effects Using the Multi-Group Analysis

**Sang-Wook Nam*, Jin-Whan Yang**
**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Seow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사회적 책임(CSR) 수행 활동과 그 이행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경로를 거쳐 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중소기업을 리스크 지각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t-검정과 구조모형을 통해 두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그로써 CSR 수행 활동 요인과 CSR 이행에 따른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 차이 및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두 그룹 간 CSR 활동 차이는 소통과 차별전략 변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 그룹 간 CSR 수행 효과는 재무성과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키워드 : 경로계수, 다집단 분석, 리스크,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iffer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CSR") effects on SME's depending on the level of business risk perception. For this aim, we divided the analysis target SEM'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business risk perception and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CSR effects through t-test and the 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 As a results, the difference of CSR activities between the two groups occurred in the communication and strategy. In terms of CSR effects, there was a gap in the financial performance.

Key Words : Path Coefficient, Multi-Group, Risk, CSR, SME

## 1. 연구목적

기업의 생존패러다임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바뀌어 왔다. 돌이켜보면, 실제 실적과 시장점유율 우위를 제일로 치부했던 시대가 있었고, 양적 성장만이 전부가 아닌 시대로 전환되면서부터는 내적으로 경영의 질이 우수한 기업이 으뜸으로 내세워졌던 때도 거쳤다.

그러했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기업과 동반자 관계이자 성장의 토대인 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수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하느냐가 우수기업의 잣대로 자리 잡고 있다[1].

이러한 작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수행이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대로 CSR은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대중의 신뢰도 상승 그리고 장, 단기적으로 기업 재무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한층 끌어 올리는 기

Received 2017-11-23 Revised 2017-12-08 Accepted 2017-12-20 Published 2017-12-31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Nam (swnam@seowon.ac.kr)

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2-5].

특히, CSR은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판도 상승 외 기업 내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CSR이 다방면에서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6-8].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CSR 수행 활동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목적이 오롯이 이윤창출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유수의 기업들은 공중의 시선과 인식을 변모시켜 나가는 유용한 수단이자 중요 경영전략으로 CSR 수행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본래 기업가치는 당해 기업의 앞으로 이익창출능력에 대한 현재가치이다[9]. CSR은 이러한 기업 가치를 궁극적으로 높이는 토양으로, 이미 시장 선도 기업들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CSR의 속성 내지는 기능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지 않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살핀 기업성과와 CSR 수행 간의 연결고리를 보면 대개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아 중소기업의 CSR 수행 효과가 대기업과 마찬가지인지를 명확히 논의하기는 아직 연구결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SR 수행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개별 기업군의 특성, 예컨대 경영위험 인지력 차이 등을 분석 도구에 넣어 그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10].

따라서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에 기반을 두고 CSR 수행 효과를 살핀 Park and Nam의 연구를 심화시켜 기업경쟁력의 한 요소인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CSR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CSR 수행의 당위성을 재조명하고, 사업 리스크를 자각하는 차이가 CSR 수행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t-검정과 다집단 경로계수 비교 분석을 통해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대로,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이익의 극대화 등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사전 인지와 대응이다. 특히, 경쟁업체와 고객 성향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기업이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신속히 적응하느냐가 기업경영 효율성을 가늠한다[11].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불확실성 중 사업 리스크에 주목했고,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High-group)과 낮은 집단(Low-group)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CSR 이행 효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나눠 다음 연구문제에 맞춰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중소기업의 CSR 활동과 그 수행 효과는 기업의 사업 리스크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중소기업이 지각하는 사업 리스크 수준 차이로 인한 CSR 수행 효과 차이는 어느 경로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위한 연구모형과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방식 및 설문 문항의 설계 그리고 설문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량 등은 Park and Nam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연구모형의 적정성 검증방법도 동일하게 채용했다.

이때 중소기업의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문항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에 기초해 사업환경 변화 속도를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있는지(RP 1), 사업 리스크 변화를 일찍 인지하고 있는지(RP 2), 고객의 니즈 변화를 사전 인지하는지(RP3),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내 자원 보유 수준이 높은지(RP 4), 경쟁기업의 경영전략을 파악하고 있는지(RP 5)로 측정 문항을 설정했다[12-14].

각 집단의 사업 리스크 인지도 측정 문항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또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측정하는 변수와 그 수행 효과 측정 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해 먼저 소통(Communication), 전략(Strategy), 이해관계자와의 협력(Cooperation)으로 선정하였다[15-16].

그리고 실증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리스크 지각 수준에 따른 두 집단의 연구모형이 같은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Park and Nam에서 제시된 바와 같았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Risk Perception

| High-group | Mean | Std. Dev | Skewness | Kurtosis |
|---|---|---|---|---|
| RP 1 | 4.64 | 1.440 | -.439 | .170 |
| RP 2 | 4.38 | 1.379 | .187 | .218 |
| RP 3 | 4.47 | 1.181 | -.201 | -.015 |
| RP 4 | 5.28 | .934 | -.556 | 1.431 |
| RP 5 | 4.67 | .904 | -.065 | .240 |

| Low-group | Mean | Std. Dev | Skewness | Kurtosis |
|---|---|---|---|---|
| RP 1 | 4.55 | 1.401 | .011 | .164 |
| RP 2 | 4.18 | 1.647 | -.007 | -.408 |
| RP 3 | 4.13 | .912 | -.094 | 1.084 |
| RP 4 | 4.01 | 1.071 | -.107 | .638 |
| RP 5 | 3.71 | .749 | -.025 | 1.308 |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피지 않았던 T-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 CSR 이행 활동과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져보았다. 그리고 이어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를 통해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에 기초한 CSR 수행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미성은 분석모형 내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한 후 기저모형(Base model)과 비교해 카이제곱 차이로 판별하였다.

## 3. 분석결과

### 3.1 T-검정 결과

Table 2와 Table 3 그리고 Table 4는 각각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가 높은 집단과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이 낮은 집단 간 CSR의 수행 그리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하나씩 보면, 먼저 집단 간 CSR 수행의 차이는 4개의 측정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t-검정 결과 나타났다. 즉, 중장기 시각에서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CSR 1), 사내 구성원 안전 추구(CSR 2), 이해관계자 지원(CSR 3), 환경보호 활동(CSR 4) 수행 정도가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모두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보였다.

또한, 재무성과로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FP 1)와 당기순이익 증가(FP 2) 역시 리스크 인지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 차이 또한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Test Results (1) : CSR Implement

| Group | Mean | Std. Dev. | Levene test | | t-test | |
|---|---|---|---|---|---|---|
| | | | F | $\rho$ | t | $\rho$ |
| CSR 1 | | | | | | |
| High | 4.62 | 1.145 | 4.171 | .042 | 6.710 | .000 |
| Low | 3.94 | 1.086 | | | | |
| CSR 2 | | | | | | |
| High | 5.10 | .999 | .009 | .923 | 7.288 | .000 |
| Low | 4.47 | .905 | | | | |
| CSR 3 | | | | | | |
| High | 4.21 | 1.482 | .938 | .333 | 6.071 | .000 |
| Low | 3.43 | 1.341 | | | | |
| CSR 4 | | | | | | |
| High | 4.59 | 1.389 | 5.078 | .025 | 7.081 | .000 |
| Low | 3.75 | 1.221 | | | | |

Table 3. T-Test Results (2) : Financial Performance(FP)

| Group | Mean | Std. Dev. | Levene test | | t-test | |
|---|---|---|---|---|---|---|
| | | | F | $\rho$ | t | $\rho$ |
| FP 1 | | | | | | |
| High | 4.52 | 1.428 | 10.81 | .001 | 4.674 | .000 |
| Low | 3.96 | 1.219 | | | | |
| FP 2 | | | | | | |
| High | 4.37 | 1.457 | 13.03 | .000 | 3.768 | .000 |
| Low | 3.91 | 1.221 | | | | |

Table 4. T-Test Results (3) : Non-financial Performance(NFP)

| Group | Mean | Std. Dev. | Levene test | | t-test | |
|---|---|---|---|---|---|---|
| | | | F | $\rho$ | t | $\rho$ |
| NFP 1 | | | | | | |
| High | 4.73 | 1.179 | 2.905 | .089 | 4.617 | .000 |
| Low | 4.25 | 1.121 | | | | |
| NFP 2 | | | | | | |
| High | 4.78 | 1.099 | 1.636 | .201 | 4.851 | .000 |
| Low | 4.31 | 1.051 | | | | |
| NFP 3 | | | | | | |
| High | 4.18 | 1.391 | 4.545 | .034 | 5.038 | .000 |
| Low | 3.59 | 1.188 | | | | |

그리고 고객니즈 부응(NFP 1), 고객 불만 감소(NFP 2), 사내 구성원의 만족도(NFP 3) 등 비재무성과도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위를 보였고,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t-검정 결과 제시되었다.

### 3.2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분석 결과

먼저, 중소기업의 CSR 수행에 대한 잠재변인에 대해

모든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해 설계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chi^2$(367 N=485)=679.67, CFI=0.947, IFI=0.947, TLI=0.939, RMSEA=0.042로 우수하였고,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재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SEM Invariance Constraints Results Summary

| Path | | | Regression weights[1)2)] | |
|---|---|---|---|---|
| | | | High-group | Low-group |
| Communication | → | CSR | 0.448(0.522)*** | 0.141(0.172)* |
| Strategy | → | CSR | 0.213(0.167)** | 0.646(0.530)*** |
| Cooperation | → | CSR | 0.332(0.279)*** | 0.284(0.250)*** |
| CSR | → | FP | 0.544(0.774)*** | 0.391(0.513)*** |
| CSR | → | NFP | 0.933(1.119)*** | 0.762(0.901)*** |

Note : 1)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regression weights.
2) *, **,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0.001 respectively.

이에 기초해 연구문제인 사업 리스크 인지도에 따라 CSR 수행 효과 차이가 어느 경로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두 집단의 각 경로계수가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전술한 바대로, 기저모형인 측정동일성 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해 설계한 분석모형 사이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 Table 6과 같이 잠재변인 중 소통과 전략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CSR 수행 효과가 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과 그 수행 효과가 사업 리스크의 인지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Table 6. The Gap of Model Fit between Base Model and Invariance Constraints Model[1)]

| Path | | | $\Delta df$ | $\Delta\chi^2$ | ΔIFI | ΔTLI |
|---|---|---|---|---|---|---|
| Communication | → | CSR | 1 | 5.282** | 0.001 | 0.001 |
| Strategy | → | CSR | 1 | 10.740*** | 0.002 | 0.002 |
| Cooperation | → | CSR | 1 | 0.039 | 0.000 | 0.000 |
| CSR | → | FP | 1 | 3.257* | 0.001 | 0.000 |
| CSR | → | NFP | 1 | 6.16 | 0.000 | 0.001 |
| All constrained | | | 5 | 16.105*** | 0.003 | 0.001 |

Note : 1) *, ** and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and 0.001 respectively.

한편, 추가로 모든 경로와 요인적 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 다음 Fig. 1로, 여기에 표기된 경로계수는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가 높은 집단의 계수이며, 괄호 계수가 추가 기재된 경로는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이고, 이때 괄호 안 계수는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이다.

따라서 Fig. 1은 두 집단 간 CSR 이행 활동에 차이가 나는 것은 소통과 차별전략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CSR 수행 효과가 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또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수월히 분간케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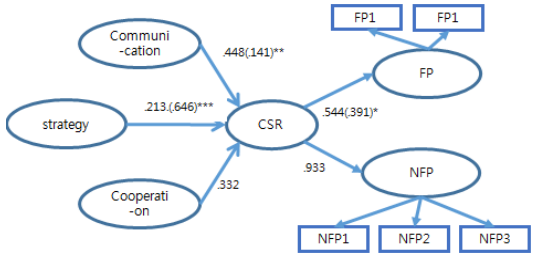


Fig. 1. SEM Invariance Constraints Results

결국, 연구문제로 설정한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에 따라 CSR 이행 활동에 미치는 요인과 사후 CSR 수행 효과는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은 두 집단의 소통과 전략 변인이 CSR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또 CSR 수행 효과가 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 4. 결론

이 연구는 소통과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소기업의 CSR 수행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CSR 수행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사업 리스크 인지력의 정도가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CSR 수행과 그 효과에 미치는 각 요인 간 인과구조를 종합해 보면, 소통과 차별화 전략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CSR 수행에 자극을 주고,

이 CSR 수행을 매개로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요인별 영향력 면에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요인은 사업 리스크 인지 정도에 상관없이 공히 두 집단 매우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분석결과로 보였듯이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이 높은 기업이냐 낮은 기업이냐에 따라 CSR 수행 요인과 그 효과가 차이가 나타나는바, 사후 CSR 수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리스크 인지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기업 차별화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CSR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디 CSR이라는 것은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에서 당해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 수행이다[17]. 그리고 무엇보다 CSR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또 자기 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CSR을 선택해 이해관계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18-20].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CSR의 성패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리스크 인지가 결국 CSR 활동과 그 수행 효과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 역시 한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된 설문 문항을 토대로 CSR 수행 요인과 사후 효과를 살펴본바, 분석대상 자료의 협소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가능한 분석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업종 또한 세분화해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사업 리스크 측정 항목도 더욱 세밀히 설정해 측정할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단순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피동적 활동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 제고와 사회 신뢰를 쌓아 올려 궁극적으로는 재무성과를 높이는 데도 분명 조력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연구는 여기서 매듭을 진다.

## REFERENCES


[1] S. W. Nam. (2016). The Empirical Study on CSR Activity of Insurance Company and Comsumer's Trust in Korea.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27(1),* 33-65.
DOI : 10.21480/tjrm.27.1.201603.002

[2] D. B. Montgomery & C. A. Ramus. (200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utation Effects on MBA Job Choice.* USA : Stanford Research Institute.
DOI : 10.2139/ssrn.412124

[3] J. D. Margolis & J. P. Walsh. (2001). *People and profits : The search for a link between a company's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 J. D. Margolis & J. P. Walsh. (2003). Misery Loves Companies : Rethinking Social Initiatives by Busi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2),* 268-305.
DOI : 10.2307/3556659

[5] K. B. Choi, J. K. Kim & H. R. Kim. (2017). The Effect of Medical Institu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239-248.

[6] J. J. Asongu. (2007). Innovation as an Argument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and Public Policy 1(3),* 1-21.

[7] D. Grayson & H. Adrian. (2004). *Corporate Social Opportunity! Seven Steps to Mak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ork for Your Business.* Sheffield University, Greenleaf.

[8] K. Mendibil, J. L. Hernandez, X. Espinach, E. Garriga & S. P. MacGregor. (2007). How can CSR practices lead to successful innovation in SMEs. *Publication from the RESPONSE Project,* 1-7.

[9] S. H. Koh. (2016). A Converging Approach on Investment Strategies, Past Financial Information, and Investors' Behavioral Bias in the Korean Stock Marke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205-212.
DOI : 10.15207/jkcs.2016.7.6.205

[10] H. S. Park & S. W. Nam. (2017). Risk Perception and CSR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221-228.
DOI : 10.22156/cs4smb.2017.7.4.221

[11] M. Hammer. (2001). The Superefficient Company. *Havard Business Review, 79,* 82-91.

[12] J. A. Aragon-Correa, N. Hurtado-Torres, S. Sharma & J. V. Garcia-Morales. (2008). Environmental strategy and performance in small firms : A resource-based perspectiv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86(1),* 88-103.
DOI : 10.1016/j.jenvman.2006.11.022

[13] C. H. Chang. (2014). Proactive and Reac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ntecedent and Consequence. *Journal of Management decision, 53(2),* 51-468.
DOI : 10.1108/md-02-2014-0060

[14] J. H. Bae. (2016). *The Effect of SME'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n CSR and Business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DOI : 10.14400/jdc.2016.14.3.181

[15] S. Y. Byun & J. W. Kim. (2011). Strategic CSR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Korean and Japanese Corpor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2(1),* 83-110.

[16] Y. C. Chang & C. Y. Ahn.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Competitive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5(9),* 3553-3577.

[17] H. B. Lee, C. M. Lee & A. R. Choi. (2009). Determinants of CSR Activities in Korean Insurance Companies.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20(1),* 149-168.
DOI : 10.21480/tjrm.20.1.200906.006

[18] H. S. Lan, M. S. Lee & J. W. Lee. (2014).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Image through Identifiability Effec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5(4),* 103-120.

[19] J. H. Kim & J. S. Song. (2010). A Study abou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Advertising Research 87,* 339-363.

[20] S. Sankar, C. B. Bhattacharya & D. Korschun. (2006).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trengthening Multiple Stakeholder Relationships :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4(2),* 158-166.
DOI : 10.1177/0092070305284978

## 저 자 소 개

남 상 욱(Sang-Wook Nam) [정회원]

- 2004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 2009년 3월 :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학술원 Post Doctor (JSPS)
- 2011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보험, 리스크, 신뢰, CSR

양 진 환(Jin-Whan Yang) [정회원]

- 1999년 11월 : 법무사시험 합격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8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CSR, 중소기업법, 부동산정책